

마태복음 15장,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요절 : 31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6장의 내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첫째 단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와의 대화"(둘째 단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7병 2어의 기적"을 베푸신 일 등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갈등의 불뚝이 예루살렘까지 튀었다는 증거요, 주님의 수난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異邦)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 첫째 단원(1-20) 의문의 종교와 마음의 신앙
- 둘째 단원(21-28) 자녀의 떡과 개의 부스러기
- 셋째 단원(29-39) 7병 2어의 표적

첫째 단원(1-20) 의문의 종교와 마음의 신앙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1).

① 본 단원의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그에 따른 교훈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신앙 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2) 하고, 의문을 들어 신앙 인들을 비난을 합니다. 저들이 무슨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요 1:19) 하고 물은 것을 감안해 볼 때, 일종의 진상조사 차 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제자들을 주시해보다가 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②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 하십니다. 이는 대답이나 해명이 아니라 반격(反擊)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반격하신 유전(遺傳)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4), 저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5) 하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헌금했다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유전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③ 왜 이런 유전들을 만들었는가? 저들의 유전은 헌금을 많이 거두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점을,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23:16-18) 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전을 만든 것입니다. 현대교회에도 그런 잘못된 교훈은 있습니다. 왜 일천 번제를 드리라 하는가? 왜 "별미"(창 27:4)를 가져 오라 하는가? 어찌하여 십일조는 강조하면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23:23)은 강조하지 않는가?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목회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④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7)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7-9) 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마음이나, 계명이나"에 있습니다. 아무리 계명을 다 지켰노라 자랑을 해도 마음을 드림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形式的)인 종교일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종교인과 신앙인"의 구별이 있습니다.

⑤ "부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0-11) 하고 교훈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냐? 음식이냐? 죄악이냐? 그것은 분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18)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19-20) 하십니다.

⑥ 그렇다면 어찌하여 레위기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레 11:44) 하고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단 말인가? 여기에 문자(文字)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의문(儀文)이 아니라 신령(神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는 한 살(출애굽한지 1년) 정도의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성민(聖民)으로써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짐승으로 성결을, 부정한 짐승으로 죄악을 상징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규례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히 9:9-10) 것이었습니다.

⑦ 그래서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14)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안식일" 문제로, 바울은 특히 "할례" 문제로 기성세력과 부딪혔습니다. 안식일도, 할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즉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양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자신들은 정결하고, 씻지 않는 저들은 부정한 양 비난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은 이런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의 종교와 마음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이 되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21-28) 자녀의 떡과 개의 부스러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21).

①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의 항구들로 이방(異邦)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서 "나가사",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②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22)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칭호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9:27, 12:23) 하는 신앙고

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방에 오셔서, 이방인을 통해서야 이런 고백을 듣게 되다니!

③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23상) 합니다. 어찌하여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는 마음이 민망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24)을 생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요 1:11)은 배척을 하다니, 이것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 하신" 주님의 아픈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롬 9:1-4) 합니다. 즉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애끓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8:12)을 생각한다면 어찌 애 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주님의 마음에도 이런 고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24) 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④ 그러나 여자는 물러가지 않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25) 합니다. 그러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26)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하여도 너무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역사(役事)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분을 내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7)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⑤ 여자의 말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인(主人)의 상"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좀 전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다윗의 자손과, 주인의 상"이라는 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차려주신 "주인의 상"인 것입니다. 여인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 4:22)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냉혹하게 여겨졌던 주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하던 한 이방 여인을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을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 7:29) 하십니다

#### 주인의 상

①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자녀로 여기시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신다고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녀란 말인가?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아"(12:34, 23:33) 하십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7:6) 하시지 않으셨던가? 메시아언약으로 유명한 시편 22편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시 22:16)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가장 잘 믿노라고 자랑하는 할레당을 가리켜 "개들"(빌

3:2)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개"는 누구인가? 여기에 위대한 반전(反轉)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서록에서는 "개들과 술객들과...우상숭배자들이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 22:15) 하는 것입니다.

②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인의 상"(床)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마련해주신 식탁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 유월절이니라"(출 12:11) 하신, "유월절 식탁"입니다. ㉡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에 거짓된 인간들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시 78:19).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매일 "만나의 식탁"을 준비해주셨던 것입니다. ㉢ 이 예표적인 식탁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26:26) 하신 "최후만찬"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요 6:54)고 말씀하십니다. ㉣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눅 13:29) 하실 "천국 잔치의 식탁"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③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28상) 하십니다. 이방 여인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롬 10:9-10) 한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응하여진 셈입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28하) 합니다.

④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신 말씀을, 물 위로 건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14:31) 하신 말씀과 대조해 보십시오.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신념(信念)이 아닙니다. 신념은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언약)에 대한 반응입니다. "큰 믿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왜 오셨는가를 알고 확신함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확신하지 못함으로 시험을 당할 때에 빠져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

⑤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을 믿고 고백함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와 "주인의 상"에 참여하게 된 언약백성, 곧 자녀가 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박차고 밖으로 나감으로 개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구할 것이 있다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22), 주여 저를 도우소서"(25) 하고 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개"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었으나, 언약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단원(29-39) 7병 2어의 표적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29).

① "큰 무리"(30상)가 각색 병자를 데리고 오매, "고쳐주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

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30-31) 합니다. 먼저, ㉠ 이 "큰 무리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은 "시돈 지방"(21)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29)는 말씀이 안내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여인처럼 시돈 지방에서 따라온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31하) 한 말씀입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22), 주인의 상"(27)이라고 고백한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요 4:22)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저희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롬 9:4)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은 알고 있으며, 유대인들은 배척하는 데 이방인들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 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32) 하십니다. 큰 무리들은 주님과 "사흘"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굶주린 상태로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기진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33) 하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5병 2어의 표적은 가마득하게 잇은 것 같이 보입니다. "큰 무리와, 광야, 사흘이나 되었다"는 환경은 제자들의 믿음마저도 기진 하게 만든 것일까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34). 그리하여 "7병 2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37-38) 합니다.

㉣ "7병 2어"의 식탁에 참여한 저들은, 이를 베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분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인가? 여기서 두 장면의 유사성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나 이 때나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라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매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어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렇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죈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시 78:19-20, 25, 32-3).